

Better PEOPLE Better WORLD



표지인물 김창송 성원교육(주) 회장

김창송 회장은 경영과 신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믿으며 CBMC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분주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영자이다. 수필가로서의 활발한 활동 또한 경영과 무관하지 않음은 김회장의 믿음이 일상생활 깊숙이 퍼져 있음을 일깨워준다.

<관련기사10~13면>

2004

May

5

- 3 머릿글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4 월프로그램
5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박노해 시인
- 10 자랑스런 회원
김창송 성원교육(주)회장
- 14 지자체 특강
최영희 (주)내일신문 부회장
- 16 2050·3060 데이트
- 19 회원칼럼
유상옥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20 특별기고
주재용 전 한신대 총장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리더십이야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28 나를 변화시킨 한권의 책
이현정 불교방송 아나운서
- 29 발행인편지
- 30 이시형 칼럼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가장 가까이 바다와 만나는 곳 -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서울 사무소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9-23 장석빌딩 2층/4층 TEL 02 322 1500 FAX 02 3443 4206
샤인빌리조트 699-811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TEL 064 780 7000 FAX 064 780 7007

대선 이후 대만정치와 양안관계

지 난 3월 20일 실시된 대만의 대선 과정을 보면서 10여년의 미친한 민주화의 역사를 갖는 대만사회가 초심자로서의 겸허함이나 신중함 보다는 민주화 실현에 대한 오만으로 충만해 있고 민주주의의 변태적 모습들로 점철되어 있어 오랫동안 대만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찰해 온 한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만식 민주주의의 실천은 비록 대만인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장점들을 소실시켜 왔고 특히 반복되는 선거는 종족 지역간의 갈등이나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대립을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따라 대만사회가 심각히 분열됨으로써 차기 정부에게 사회통합을 위한 심각한 부담과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에 대한 맹목적인 오만과 심각한 정서주의에 빠진 대만식 민주화는 양안간의 분쟁이나 충돌을 완화하고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대선 후 중국의 대만정책 변화 구체화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940년 생 / 66년 경희대 정치과 졸업 / 74년 중국문화대학 법학 박사 / 72년~75년 중국 문화대 부교수 / 76년~79년 경희대 행정학과 부교수 / 85년 美 캔자스대 객원교수 / 94년~96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97년 獨 함부르크 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 / 01년 한국전쟁연구학회 회장, 시민정치학회 회장 / 인간개발연구원 감사 / 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번 대선에서 양진영간 공방의 주요의제는 독립에 실질적 의미가 함축된 국민투표에 주어졌고, 그 결과 2000년 대선 당시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의 격렬한 논쟁의 의제였던 통일과 독립문제는 이번 선거의 핵심의제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이것은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대만정치의 생태학적 발전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대만에 있어서 독립이나 분리주의가 하나의 이론적 추상적 단계를 넘어 현실적 구체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수령을 형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이루어진 국민투표는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지만 대의정치의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가 미래 양안관계 발전과정에 중요한 변수나 요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양안간의 직항문제나 대륙인의 대만 관광, 유학문제 등도 언제나 국민투표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양안관계의 위상 설정을 위한 대륙과의 평화협상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의 집권자들이 정책적 수단을 통해 양안간 교류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접근자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대만 집권 엘리트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대만의 주민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기존 정책이나 고려가 주로 상대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만의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대 대만정책에 있어서 대만의 현실에 기초한 신사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조정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대 대만정책의 변화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보다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성적 민주화 확립은 양안관계 발전에 순기능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제도나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일종의 생활방식이며 가치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민주정치의 확립에는 그 첩경이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점진적인 축적의 경험과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만사회가 맹목적이고 정서화된 민주가 아닌 이성적 민주화를 이룩해 가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 표출된 오만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정치의 변태적 현상들을 시정해 가는 노력을 경주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성적 민주주의 확립은 대만에서의 민주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사회의 변화와 양안관계발전에도 순기능으로 나타날 것이다. (人間)



5 주년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정신과 미래기업으로의 성장비전

1350회 5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차 중근 (주)유한양행 사장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법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인재와 환경,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그린페이퍼'의 한 대목이다. 기업은 이제 단지 이익추구 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윤리경영'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경쟁력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배출하며, 기업이익은 첫째는 기업을 키워 일 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는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는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70여년의 역사 속에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유한양행은 주목할만하다.

최근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기업가故 유일한 박사는 산자부가 올해부터 주관하는 '이달의 기업인'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유일한 박사의 이름을 딴 '유일한로'가 경기도 부천시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투명경영 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에도 힘을 쏟은 점을 인정받아 한국기업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04 기업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한양행의 차중근 사장을 초빙하여 유한양행의 창업정신과 '신약개발력'을 갖춘 세계적 '미래기업'으로의 성장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동국대 상학과 졸업(1968)
 - ▲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2001)
 - ▲ 美 Barrington대 MBA(2001)
 - ▲ (주)유한양행 입사(1974)
 - ▲ (주)유한양행 부사장(2002)
 - ▲ (주)한국안센 공동 대표이사(2003-현)
 - ▲ 웨링푸라우코리아(주) 공동 대표이사(2003-현)
 - ▲ 유한김벌리(주) 이사(2003-현)
 -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2003-현)
 - ▲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2003-현)
 - ▲ 유한재단 이사(2003-현)
 -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이사(2003-현)
- 〈상훈〉 성실납세자 포상, 한국물류대상 수상



일본 노동시장의 서비스 현황과 고용관행의 변화

1351회 5월 1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기노우찌 히로미찌 (주)학생후원회 광고홍보담당 이사

일본기업은 근로자들을 정년까지 끌어안고 가는 문화로 대표된다. 즉 강력한 사회집단의식을 바탕으로 종신고용제를 채택하는 한편 소득은 생산성의 우열이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동양적인 가족의식과 장유유서의 질서의식을 충족시켜 왔으며 근로자의 장기적인 헌신과, 기업자체의 가족화를 통해 7~80년대 안정된 분위기에 건설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로 대표되어 온 일본 기업들의 임금 및 인사제도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 리쿠르트는 오는 10월부터 연공서열제 요소를 없애고 개인별로 최고 6배까지 격차가 나는 '완전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이 달 초 발표했다. 경영혁신을 선도해 온 닛산은 4월부터 간부직에만 적용해 온 성과주의를 전사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일본기업문화의 변화와 함께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 타이 등의 아시아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나올 일본노동시장의 개방여부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일본 구인정보지 발행사업의 파이오니아로서 인재소개, 인재파견, 취직지원, 고용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연간 약 5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학생후원회의 기노우찌 히로미찌 광고홍보담당 이사를 초빙하여 일본노동시장의 동향과 변화하는 일본노동시장의 서비스 및 고용관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주)학생후원회 입사(1972)
- ▲ 구인정보지 편집, 인재소개, 인재파견 업무 담당
- ▲ (주)학생후원회 광고홍보담당 이사(현)
- ▲ 인재채용정보지의 편집인(현)
- ▲ 정부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현)
- ▲ (재)고용정보센터 이사(현)
- ▲ (사)전국구인정보협회상임위원(학생후원회 등)(현)
- ▲ <저서> 취직을 성공시키기 위한 아르바이트 채용법, 직무경력서의 작성 방법 외



의학박사 정재원의 베지밀 인생이야기

1352회 5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업체 및 시장형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콩은 불포화성 식물성지방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어느 식품보다 영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의학계를 통해 인정되고, 단백질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성인병 치료 예방에서 콩의 역할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두유를 처음으로 식품화한 정식품의 '베지밀'은 1973년 소아과 전문의인 정재원 박사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장박사가 이렇듯 두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 당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치료법은 유당을 함유하지 않은 영양적 대용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초창기 가내수공업 형태로 베지밀을 생산 공급하다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체제를 갖추고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정박사는 사업가라기보다 콩연구가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콩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신념이 남다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가공식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을 초빙하여 치료용 대용식 연구에서 시작해 30여년간 설파해 온 두유의 우수성과 그에 따른 인생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의사검정고시 합격(1937)
- ▲ 英 런던대 소아과대학원 전기코스 수료(1961)
- ▲ 日 동경소아과대학 의학박사(1961)
- ▲ 정·식품 연구소 개설, 순식물성유(두유)연구(1965-66)
-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1966-76)
- ▲ (재)정·건강관리소 이사장(1972-86)
- ▲ (주)정·식품 회장(1973-00)
- ▲ (재)혜춘장학회 이사장(1984-현)
- ▲ (주)정·식품 명예회장(2000-현)
- ▲ <상훈> 제1회 대한발명특허품 전시회 대법원장상, 제11회 발명의 날 상공부 장관상, 한국소비자여론협회 인기 금상 외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방향

1353회 5월 27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정찬용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권력을 낚는 힘의 원천이다. 그 힘에 의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던 것이 과거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참여정부 또한 인사시스템화를 통해 정책방향 설정과 결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인사원칙을 밝힌바 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화란 것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조직의 기능화와 실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공천이나 인사권으로 여당을 지배하던 제왕적 대통령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권력기관의 독립성 강화, 비주류와 386 등 신진세대의 국정참여 등을 통한 탈권위를 표방하면서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 해체, 참여민주주의, 지방화와 분권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정부는 국민 인사제안제도, 5단계 선정방식, 다면평가제 실시, 개방형 직위 공개채용, 정부산하기관 임원 공개모집, 인사 로드맵 제시 등 정실인사를 차단하려는 일단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집권 1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새 인사시스템의 도입을 꼽을 정도이다. 인치(人治)의 영역에서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제도적 기틀 마련을 통한 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성공의 관건이 인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들은 향후 인사정책에 깊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재야활동을 통해 깨끗한 '시민운동가'로 평가받으며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거침없는 소신을 밝혀 화제를 낳고 있는 정찬용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초빙하여 참여정부 1년여의 인사정책과 향후 인사혁신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1974)
- ▲ 경남 거창고 교사(1975)
- ▲ 경남 거창YMCA 총무(1982)
- ▲ 누리문화재단 이사(1996)
- ▲ 학교법인 거이학원 감사(1997)
-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1998)
- ▲ 광주YMCA 사무총장(1998-03)
- ▲ (재)광주비엔날레 이사, (재)광주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이사(1999)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2002)
- ▲ 대통령비서실 인사보좌관(차관급)(2003)



글로벌시대와 나눔의 철학

박 노 해 시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떻게 인생을 볼 것인가'하는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 붓다는 '인생은 고타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해서 이 세계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세계가 된다.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것이 변해 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출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닫는 것이 삶의 본질이 된다. 어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자신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눈밖에 있는 것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보이는 것 말고는 배타하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영혼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지구인의 눈, 우주인의 눈으로 볼 때 보인다

시장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고객들의 변화와 심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직자나 구도자들의 보이는 모습이 몹시 남루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창조와 혁명은 항상 변방에서 마이너리티에게 일어나게 된다. 또 비록 젊은 세대가 거친 걸음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본다. 코페르니쿠스의 시대에는 모두가 다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구인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친구들은 우주인의 눈으로 관점을 바꿔서 봤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시도와 조감도라는 것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보는 서양의 건축물들은 투시도의 기법이다. 투시도에는 항상 중앙이 있고 한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전부 보게 되어있다. 서양의 성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성주 한 명이 모든 들판을 바라보게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광장도 마찬가지로 항상 도시의 중심에 있다. 한사람의 권력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세계를 보는 눈의 잣대가 되었던 것이 투시도의 건축기법이다. 우리 옛 조상들은 새의 눈으로 보는 조감도의 눈을 가졌다. 새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연과 산과 강과 이웃집과의 조화의 눈으로 보게 된다. 투시도는 높은 상징건물을 중심으로 구호가 난무하고 선전이 난무하는 미성숙한 사회의 위계 질서를 갖게 되는 반면 각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 조화와 개성을 존중하는 조감도의 눈은 유기적인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시인의 눈, 새의 눈으로 보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삶과 현실은 한국인의 눈, 경영자의 눈, 운동가의 눈, 이런 하나의 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구인의 눈, 우주인의 눈으로 바로 볼 때 이 문제가 보인다.

생태위기, 전쟁위기, 새로운 빈부의 격차, 영혼의 불안

나는 지금 인류가 부딪치고 한국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것의 근원에는 우리 인류가 봉착하고있는 네 가지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태위기, 전쟁위기, 새로운 빈부의 격차, 영혼의 불안이다.

생태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과연 몇 년이나 이 상태의 생산과 소득과 소비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유지될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다. 엇그제 영국의 <옵저버>지에 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 하나가 발표된 것이 있다. 미국의 최고 전략가인 앤드류 마셜 국방장관 고문이 20년 후에 기후환경으로 인한 지구적인 안보의 위기를 예기했다. 그때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국가안보의 개념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생태적인 문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전지구촌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도 잠기게 되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가장 보수적인 미국의 국방부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다. 생태위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보다 많은 생산과 풍요를 창출하고 그것으로 인해 모두가 평등하게 부자인 삶이 되면 인류의 진보는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인도의 인구정도가 우리 한국인의 수준으로 벌고, 먹고, 소비한다면 지구는 얼마

안 가서 끝장나고 만다는 생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적은 돈으로 기쁨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명과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요구받는다.

전쟁위기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패권시대가 도래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전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전쟁 중에서 세계의 가장 큰 화력이 집중 되어있는 나라가 한반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있지만 정말 한국은 동해와 황해에 핵잠수함이 몰려있고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서울의 봄 하늘은 미사일의 하늘이기도 하다. 우리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로 몇십 년을 지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빈부의 격차문제는 내가 석방되어서 사회적 默言의 기간을 가지면서 빈민촌을 비롯해서 가난의 현장을 살펴보게 되었다. 과거에는 향아리형이라고 해서 훌쭉한 향아리를 조선백자처럼 가운데의 중산층이 두툼한 향아리의 구조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꿈이 있었고 또 정직하게 땀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표주박형으로 중산층이 붕괴하고 상류층과 극빈층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빈민촌에서의 이글거리는 분노의 강도는 너무 강해서 섬뜩하기조차 하다. 나는 다른 것은 빼고라도 탄핵을 이번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신용불량자만 4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 청년실직자에서부터 지방대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고시텔에서 새우잠을 자가면서 취직해보겠다고 소일거리를 날이면 날마다 해마다 좌절을 한다. 실직 노숙자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정말 심각한 행정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은 기존의 민주세력이나 시민사회세력도 통제가 어려운 분노의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30~40대의 젊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동반자살을 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를 신문에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못된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몇 천명의 후배들이 지금도 15년 동안 빈민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공부방을 가르치면서 처절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 숨어있는 성자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난은 탈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가난이 되어 버렸고, 대물림되는 세습적인 가난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가난을 탈출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더 심어주고 좌절의 구조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난하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살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

나는 지금 '나눔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다. 산동네 빈민촌의 아이들에게 주말 체험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면서 미래의 대물림하는 빈부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돌파해 보고자하는 창조적인 모델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한 줄을 모른다. 학교에서도 가난한 아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부모도 안 해준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쯤 들어가면 그때서야 '아! 내가 가난하구나'를 깨닫는다. 사회적인 백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사회, 인간사회에서 가치 있는 모든 미덕과 도덕과 공동체의 윤리는 모두 가난으로부터 나왔다. 잘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인류의 미덕으로 발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겨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한마디인데 한국사회에는 그것도 없다. 우리가 서로 근검절약 해야 되고 항상 의지를 가지고 고통에도 좌절하지 말고, 겨울 삶을 잘 살아서 꽃보다도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것들이 모두가 가난 속에서 나온 가치이다. 그런데 이 가난의 미덕과 가치가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빈부차이의 문제들은 정말 구조적이고 심각한 사태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1%나눔이나 자선적인 나눔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있는지 나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런 문제의 구조적인 악의 실재를 직시하지 않고, 창조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언론홍보와 기업의 마케팅으로써의 나눔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영혼의 실종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서 어떠한 세대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똑똑함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행복감은 더 떨어지는 것이 우리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지는 만큼 행복감이 저하되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혼의 방향과 불안 등 내면의 상처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을 평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최고의 사회복지시스템은 '靈性'이라고 얘기한다. 상처받지 않는 능력, 쉽게 좌절하지 않는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나눔문화의 시작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차원들 속에서 나는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의 평등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의 답을 찾고 싶었다.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은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통념으로 주어진 것은 약육강식이고 시장승부이다. 마르크스의 평등론은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는 강한 인간내면의 부르짖음이다. 시장이 어떻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그 어떤 논리나 시스템도 결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평등론이다. 그러나 이 평등이 기계적인 평등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나는 항상 손가락의 평등을 생각한다. 손가락을 보면 모두 다르다. 표정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다. 그러나 어느 손가락하나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 만약에 손가락 다섯 개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기계적인 평등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손이 아닐 것이다. 또 한편 한 명의 천재가 모두를 먹여 살린다면 이것은 좌절된 절망의 몸부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가락 하나가 피노키오처럼 길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의 사상 속에서 답을 찾고자 감옥에서 오랜 생각 끝에 나눔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5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나눔문화를 만들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나눔'이라는 어휘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눔 바람 속에서 진정한 나눔문화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나눔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운동과 영성이 같이 가야되기도 하고 운동과 경영이 앞으로 같이 가야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

나눔문화의 특징은 일체의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홍보의 시대가 되면서 다들 어떠한 실체가 생기기도 전에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마구 알리고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좀 진정하게 사랑은 나직하게 나눔은 소리 없이 가보자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고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까지만 조용하게 실험을 하고 삶의 실체를 키워가면서 나눠가자는 뜻이다. 원래 원천기술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젖소를 키워야한다

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좋은 젖소,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풀밭부터 만들어야한다는 대단히 보수적인 행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관계자들로부터 '왜 보도를 못하게 하는가' 하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

창조적인 나눔 모델이 중요

우선 '나눔 문화포럼'이란 것이 있는데 30~40대 리더들 중에서 완전히 주류로 떠오르기 직전의 창조적인 분들이 모여서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포럼이다. 창조적인 나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눔학교'에서 아이들의 창의력교육을 한 학기 마쳤는데 벤처기업의 건강한 CEO들이 빈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직자들이나 노숙자들이 알코올을 끊은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곳에 다녀와서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이 자극을 받아서 알코올을 끊고 재활동의지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도 아주 뛰어난 성적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 단체들이 이러한 창조적인 문화를 나눠달라고 해서 전체에다가 지금까지 했던 모델들을 만들어서 나누는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쳐서 40만 가까이 있는데, 자본은 세계화되고 있는데 노동은 국경이 막혀있는 이런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 누구도 하지 않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소리 없이 경제를 뒷받침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쫓겨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주목했다. 가장 배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검은 사람들이다. 매주 300명씩 모여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 교육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고 있다. 사장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충돌이 많이 생긴다. '왜 당신이 불량품을 내면 안되고, 이 약속은 왜 지켜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개념이 없는가'에 대한 문화교육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지방 쪽에는 지방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두 명씩 고용되는 사각지대가 되는데 '대전외국인' 노동자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무지와 무학과 가난과 장애라는 네 가지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 지역을 모델로 삼아서 6개월에 걸쳐서 골방으로부터 끌어내었다. 왜냐하면 오빠의 혼사 길을 망친다고 골방에 가두어두고 있어서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창조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자선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시켰다. 컴퓨터교육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태연'이라는 아이가 갇혀 있다가 시설 속에서 처음으로 햇빛을 본 아

이다. 이 친구가 한 달에 15만원을 버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나눔문화에 지원을 한다. 이 단체가 상당한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NGO들 사이에서는 창조적인 모델로 되어있다.

그 다음이 평화나눔인데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과 이라크나 발칸반도, 동남아시아 등지에 평화를 나누는 운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서울에 '평화나눔아카데미'를 세웠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과 평화의 영성을 키워서 일상 속에서 평화가 자리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이다.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의 욕망이 사납게 충돌하고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국가적인 현상이다. 기존의 반전평화운동은 운동권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나눔 문화에서는 여러CEO분들도 참여를 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이번에 1기 6개월 과정을 끝내고 2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몰려서 강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리더가 있다고 한다. 리더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CEO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애기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지 귀신처럼 알아채는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관계의 힘이다. 진정한 관계의 힘은 생명, 평화, 나눔과 같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의 관계를 이루는 힘만큼 큰 관계의 힘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은 위험한 시대에 기업을 하느라 고생이 많을 것이다. 돈터 보다는 삶터로써의 기업을 만드시고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길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나는 그런 남자와 여자, 나이 들수록 안이 잘 익어 가는 그런 영혼이 되길 기원한다. **人間**

손해 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 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좀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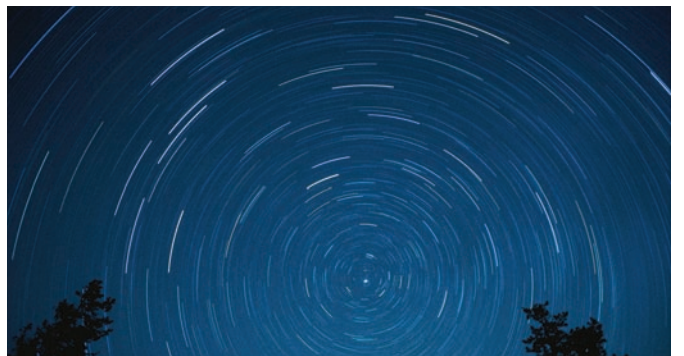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신** 용은 곧 성경적 경영과 연결됩니다. 정직한 정도경영을 해야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송 회장은 함경도에서 태어나 혈혈단신 월남해서 지금의 '성원교역'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경영자이다. 어릴 때부터의 신앙생활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신용을 중시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김회장은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에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신앙이 없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연일 분주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회장은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바른 경영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필집을 출간하는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기업경영과 CBMC활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성경적 개념으로 경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회장을 만나 36년을 이어온 경영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 기독교 CEO의 지경을 넓히는 CBMC의 전도활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신앙과 경영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김 창 송 성원교역(주) 회장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하는 것은 없지만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여러 모임에 참석할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곤 해요. 고층건물이라도 걷는 것이 힘들지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심신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육체적 운동과 병행해서 지키다 보면 정신적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소설가 박경리씨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살아있음으로써 손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능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늘 즐겁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송 회장

1928년 생 / 고려대 경영대학원 / 중앙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 68년~현 성원교역(주) 회장 / 한국수입업협회 초대연수원장, 부회장 및 고문 / 02년~현 아시아기독실업인회 이사장 / 03년~현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 / 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회 회장, 대한상시중재원 중재인, 수필산책문학회 부회장,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회장님께서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건실한 기업경영을 이어오고 계신 대표적인 경영자이십니다.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는지요. 또 간단한 회사소개도 부탁드립니다.

1968년 화학약품 수출입 전문업체인 성원약품상사를 창립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0년간 다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원부자재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업초기에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 기업들의 한국 에이전트로서 화공약품, 기계류 등의 수입 및 오판업을 했습니다. 지난 3월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했고 현재는 모체인 성원교역(주), 성원엔비캠(주), 성원산업상사 그리고 미국과의 합작회사 JPI, 영국과의 합작회사 성원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시아기독실업인회'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3월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에 취임하시고 활발한 비즈니스 전도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개와 함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기독실업인회(Christian Business Mens Committee)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1930년대 세계대 경제공황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복음단체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6.25동란 중에 황성수 박사에 의해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약 80개 국가에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은 국내외 200여개 지회에 10000명의 회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시아기독실업인회' 이사장도 맡고 있는데, 아시아에는 아시다시피 45개국에 36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국에 CBMC가 조직되어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27개 국가들을 다니면서 CBMC를 조직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상당한 기반도 다지고 사회 전반에 인식도 잘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영적인 훈련을 중요시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회창립이나 모임, 회의 때 우리의 목적은 회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CBMC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영성훈련센터 같은 것이죠.

향후 CBMC의 기본 방향도 중요하지만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전도활동이 중요해진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BMC의 활동은 신앙생활의 연장과 같아요. 말로가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경영인들에게 성경적 경영으로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일본에 가끔 갈 때마다 책을 사오곤 합니다. 그 중 사장학(社長學)이란 책에서 사람 열 명을 세워놓고 사장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장을 알아보고 지목하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역시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총체적인 인격체로서 돈이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사장다운 면모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CBMC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가 자기인격을 키우는 일에 먼저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면이 충족되는 CBMC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인간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저희 연구원의 부회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연구원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맺게 되셨습니까.

1980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구로공단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새마을지도자교육을 기업인들에게 받으라고 통보가 나온 적이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CBMC 모임이 매주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만기 회장이 CBMC에서 총무직을 맡아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교분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와 철학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침 연구원에서도 '인간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CBMC와 연구원 모두 인연을 맺은 시기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25년의 시간 동안 두 곳은 세계 있어 '학의 축'이 아닌 '선의 축'으로써 저를 지탱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에서의 활동으로 회장님의 기업경영이나 CBMC 활동에 도움이 되었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기업경영과 CBMC활동 자체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열명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되기 위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받는 도움은 절대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 일정으로 연구회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받아보는 테이프는 경영이나 전도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올 초에 일본 전국경영자대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대단히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얻어서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 해 직원들이나 CBMC 회원들에게

참신한 정보를 주고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3000여 명이 모여 대 성황을 이룬 '제30차 CBMC전국대회'에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흑자경영을 위한 비즈니스에 충실하면서도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자는 것이죠.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항상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개발'에 대한 견해와 함께 기업경영에 있어 이를 접목할만한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성원교역에는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여년 전 지금의 사옥을 짓고 회사를 옮기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물론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 보고 배우면서 '인간개발'이란 분야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경영에 도입한 것이죠. 그 첫째가 나는 제2의 창업정신으로 자율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둘째, 나는 나의 숭고한 직업을 통하여 미래의 국제화 개방화의 적응력을 적극 키운다. 셋째, 나는 21세기 이 나라의 무역 입국건설에 기여함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넷째, 나는 창의력, 도전력, 성취력으로 나의 가정의 행복한 내일을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도 신바람나는 마음자세로 자아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저는 이러한 자기개발을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월례회 때마다 스스로 복창하도록 하면서 직원들 각자에게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이 경영자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켜서 한다는 피동적인 것보다 자율적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생산적인 인간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계의 무역 흐름이 바뀌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단순한 재래식 무역이 아니라 초일류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학제품, 기계류, 원부자재를 들여와 가공 후 재수출하는 일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죠.

7년 전에 '성원엔비캠'이라는 환경회사를 설립해 21C 환경산업의 핵심인 소독제 및 중균제를 비롯한 다양한 수처리 약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국내외 시장개척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ENIDINE社와 합작으로 충격방지제를 제조 생산하는 JPI(주)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요. 국제화시대에 시장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불안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회장님께서서는 수필가로서의 왕성한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글은 언제부터 쓰셨는지요. 또 그 동안 출간하신 수필집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책을 쓸 생각을 했는데 오래 전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문화센터의 글쓰기 반을 찾아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년부인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강사가 '글이라는 것은 남에게 읽히게 해야 하는데 당신이 쓰는 글은 리포트다. 리포트는 읽히는 것이 아니다. 제목부터 글쓰는 기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4년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위해 글쓰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던 중 <에세이문학>을 통해 등단하고 「지금의 때가 아니야, 「환상의 여로」등의 수필집을 출간했는데 그 중에 「지금의 때가 아니야」는 최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 거러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 마인드가 다른 사람으로 저를 인식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더군요. 나아가 기업의 차별화 전략으로도 충분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단 전에도 세계 60여개국에 상공부, 협회 등이 주관하는 통상사절단장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비즈니스 경영」이란 이름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고독은 유일한 빛’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고독을 좋아하는데 한 편지 수필을 읽으면 세상이 평안해지죠. 좋은 인생이어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생산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더 좋은 수필집을 내는 것이 꿈입니다.

오랜 기업경영을 통해 다양한 수상경력이 있으신데요. 평소 가지고 계신 회장님의 경영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포춘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30년 이상을 이어온 기업을 조사했는데 30%가 조금 넘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IMF를 겪으며 30년을 넘게 상호를 유지해왔다는 것에 개인적인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 회사도 IMF라는 복병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성원교역은 무역업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에서 먼저 신용으로 물건을 보내주고, 저희는 물건을 모두 판매한 2, 3개월쯤 뒤에 송금을 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 환율이 상승하면서 두 배 이상의 현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공급선으로 찾아가 환율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를 해서 상환시기를 6개월 연장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들여 올 때도 신용을 바탕으로 했듯이 어려움에 처해서도 신용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용은 곧 성격적 경영과 연결됩니다. 정직한 정도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가 아니라 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CBMC의 활동이 투명경영과 연결이 되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용을 중시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인간다워집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수입협회의 초대 연수원장으로 한일문화교육원의 교육원장으로 스스로 배우고 전수하는 일에 기쁨을 얻고 있어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도 대한상사증재원의 무역분쟁조정도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덕분인지 국무총리상, 한국무역협회장상, 이스라엘 통상장관상, 법원행정처장상, 서울시장상 등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내면서 3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연구원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30년의 역사를 대나무가 마디를 그으며 성장하듯 확실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2003년 8월 3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제30차 CBMC전국대회

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YCF 같은 모임은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연구회 진행에 있어서도 주제에 따른 현장 중심의 질문을 유도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해요. 이론과 현장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이죠. 관념적인 이야기보다 다소 서툴더라도 실질적인 이야기가 경영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사 선정 때에도 문화, 역사 등 소프트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경영자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그 동안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내면서 한국기업의 위상제고, 경영자의 자질향상, 경쟁력 제고 등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 소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제107회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2004년 3월 9일



최영희
(주)내일신문 부회장

1950년 생 / 73년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 73년~80년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육 담당 / 80년~현 도서출판 석탑 대표 / 85년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초대회장 / 92년~94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 93년~02년 (주)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 95년~현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회장 / 02년~현 (주)내일신문 부회장 / 03년~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인간개발연구원은 10여년 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경기도가 정보·지식·무한경쟁의 21C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하고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지난 '98년 12월 30일 개강한 이래 현재 제108회(2004. 4. 13 기준)를 맞이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일상 접하기 쉽지 않은 양질의 교양강좌라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의 폭도 다양화되어 지역주민, 대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여, 참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등 주민의 세대에 대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월 9일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제107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 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오 늘의 주제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인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만나면 하고 싶던 얘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지 거의 일년이 되어 간다. 지방분권에 대한 법안도 통과되어 있고,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다. 준비된 제도도 힘이 없으면 진행이 되질 않는다. 국민의 지지 속에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으며 움직여야 한다. 여러 가지 악재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야 할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한다.

환경의 변화와 적응력

공직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립되려면 공무원노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융통성 없고,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이 똑똑하고 강해서만 생존과 진화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었고,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의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에 적응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출현한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갖추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정책 수행의 공정성

경기도는 정책수행에 공정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게임에 임하게 하는 조건을 공정한 룰을 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경기도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남녀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때, 여성들은 이중적 잣대에 대해 말을 한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할 때에도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의 공정성은 어떠한가. 경찰승진의 경우 일하는 사람은 일만하고 공부하는 사람만 승진하더라. 세월만 가면 올라가고 '설거지 안 하면 그릇 안 깨는 것이 공무원 사회'라는 말이 있다. 이런 식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팍팍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회주의자나 요행주의자 등 이런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익명성에 묻혀서도 안 된다. 안 되는 조직은 제복 속에 묻혀서 적당히 지내고, 되는 조직은 나 때문에 혹시 조직이 비난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조직은 잘 되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쌓을 때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무너뜨릴 때는 쥐 한 마리가 조직을 무너뜨리게 한다. 또 그 무너진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처음 쌓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다.

진정한 지방화와 시민사회의 변화 인정

시민사회의 변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시민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 세계화, 지방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지방화가 대세이다. 그 당위성도 인정받았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권한이양을 위한 수도이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우려도 대단하다.

지방재정이나 지방행정 등 자치행정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하여 중앙정부는 권한을 분권하려 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활동과 시민단체의 활동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이기주의의 심화와 갈등조정장치의 미흡이다. 이는 국가통합성을 저해하게 한다. 지방화는 민주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자기혁신 노력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란다.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인 역할

우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운동'이다. 6급부터 주어지는 노동조합의 문제, 직장협의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변하고, 동료로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정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단체권을 교원노조 수준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즉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이고, 단체협약체결권도 부분적으로 제한을 할 것이다. 교원노조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공무원노조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미흡하기에 그렇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는 조직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에게 불신 받던 관료사회를 견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다. 관료사회에 대해 정체되어 있고, 권위적이고, 변하지는 않는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무원기본권이 올바르게 회복되어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가 만든 문건의 핵심이다.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향후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장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의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쟁만을 유도하고,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신자유주의로 보면서 노동운동을 리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 경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는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범주로 보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니면 노동의 적대적인 개념으로 경영을 볼 것이다. 어떤 노동자는 경영에 참여하면서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는 반면 어떤 노동자는 경영을 적대적 관계로 보는 경직된 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하는 노동계가 '사회의 대안세력'으로 떠오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 아닌가라고들 한다.

노동운동이 상당히 힘은 세지만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공무원노조가 가장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리라고 본다. 공무원노조가 일반 노동자와 국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다면 노동운동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노동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공무원의 서비스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능력있는 정부, 참여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의 수준에 맞춰주시길 바란다. **人間**

특별기획 2050 · 3060 데이트

30대와 60대가 만나면, 말이 안 통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분명 세대 차이는 있다. 아버지와 자식세대,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오마이뉴스〉와 인간개발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세대간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2050·3060데이트 시리즈를 마련했다.

- 편집자 주

**봄날, 50대-20대 남녀가 만났다.
"누굴 찍지?" 정치학자와 총여학생회장의 소박한 데이트
[2050 데이트 ①]
문정인 연세대 교수 - 김승은 건국대 학생**

문정인 이번 총선에 처음 투표를 한다구요?

김승은 네. 제가 만 스무 살이 됐거든요. 하하. 교수님은 언제 처음 투표하셨나요?

문정인 71년 유신 전 마지막 대선 때 최초로 투표했죠. 그 뒤로 우리세대 전반이 정치적 무관심에 빠졌어요. 71년도 당시 〈연세춘추〉 편집국장이었는데, 1달 정도 서교동 친구집에서 숨어 지내고 집에도 못 갔으니까요.

김승은 그랬군요. 50대와는 달리 20대들은 모든 면에서 혜택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의식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탄핵안 가결되고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탄핵 가결시킨 정치인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들 얘기해요. 50대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문정인 우리 세대는 대부분 보수적이예요. 그러나 60대와 달리 50대만 해도 혜택을 입은 세대입니다. 대부분 6.25때 태어나서 4.19를 겪고 5.16 군사쿠데타를 목격했죠. 60대가 빈곤과 저개발의 고통을 겪은 세대라면, 50대는 70년대 '박정희 근대화'의 혜택을 입은 세대지요. 정치적으로는 3선 개헌과 유신헌법, 박정희의 유신독재

를 겪어 저항의식도 많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대화 물결을 탄 수혜자로서 이율배반적인 시대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엔 사회주의, 50대엔 보수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처럼 지금은 모두 안정 회귀를 바라는 세대가 됐지요.

김승은 어렵고 힘들게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시민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한 선배 세대에 비하면 저희들은 비교적 이슈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탄핵이라는 핵폭풍이 터져 나와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됐지만... 요즘 술자리 같은 모임에 나가면 예전과 달리 정치토론을 많이 해요. 탄핵 이후 달라진 풍속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정인 나는 20대처럼 다원주의적인 세대가 없다고 봐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결강이 거의 없고, 교수가 휴강하면 너무 싫어한다니까.(웃음) 그제 취직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그렇기도 해요. 요즘 학생들은 시민운동, 학생운동, 무전여행, 인턴활동 등 많은 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50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항상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집단적 사고에 익숙한 세대라고 봐야지요. 386세대보다 다변화·다양화 돼 있어요. 그만큼 환경이 좋아진 거겠지요. 그래서 난 20대를 단선으로 특징화하기 어렵다고 봐요.

김승은 전 건국대 총여학생회장인데요. 솔직히 학생들이 여러모로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잘 모이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 총선은 과거 학생회장 선거와도 달

라진 면모를 보일 것 같아요.

문정인 이번 탄핵정국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식과도 관계돼 있어요. 50대 중에 노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사과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이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보지요. 저는 그 자체로 50대의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다소 미숙했다고 해도 이번 탄핵은 입법부의 권력 오 남용이라고 봐요.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결정을 견디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이번 탄핵정국은 시민사회 성숙과 정치적 무관심이 극복되는



기회가 됐고, 총선 뒤에 민주주의의 진보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김승은 20대들이 탄핵에 대해 토론할 때,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잡는 건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입니다. 아니거든요.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탄핵을 심판하자고 말하죠. 제 생각엔 탄핵과 총선은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아요. 총선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인데, 자꾸 탄핵과 섞어 쟁점을 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정인 총선에서 탄핵을 심판하자는 것은 탄핵 그 자체를 심판한다기보다는 탄핵이라는 상황을 만든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죠. 50대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탄핵과 총선은 한국사회가 대전환의 과정에 놓였다는 것을 뜻해요. 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세력은 줄곧 한국의 주류로 서 승자독식 해왔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이 되면 모든 걸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모 단체의 강연을 가보니까, '남한엔 북한이 내려보낸 50만 간첩이 득시글거리고 있다'는 등 참여정부를 빨갱이로 매도해요. 보수 쪽도 새롭게 전략을 짜야 해요. 흑백논리로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되지요.

김승은 화제를 바꿔서..., 자민련 빼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1번은 모두 여성인데요. 그들이 홍보용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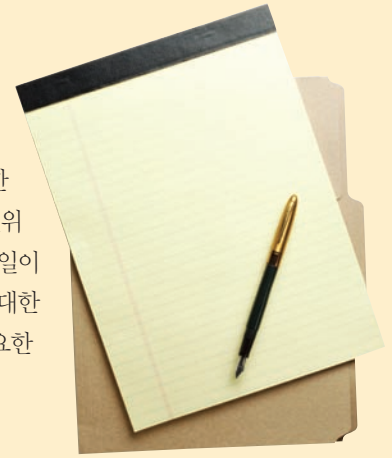
문정인 50대도 비슷한 생각인데, 여성들이 '30% 할당' 이런 식으로 이권을 확보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미 여성과 남성은 불평등한 출발선에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변혁적으로 접근해야 방법이 나와요. 나는 이번에 비례대표 1번이 대부분 여성인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이걸 한국정치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입니다. 대신 이번에 입각하는 여성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남자들이 도로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몰라요.

김승은 저는 20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리길 바랍니다.

문정인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가 국가와 민족을 개인의 삶보다 중시했다면, 20대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발달한 건 좋지만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 밥 차리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숟가락만 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권리의식은 있으나 책임은 안 지려는 경향이 있죠. 50대가 20대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하듯, 20대도 50대를 존경하고 공존의 논리로 봐줘야 할 것 같아요.

김승은 교수님만 같으면 20대와 50대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20대들의 여물지 못한 생각을 50대들이 감싸주면 권위 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딪힐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교류,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3040세대는 이제 주류, 포용력 갖춰야" "기성세대의 틀이 너무 완고하지 않나요?" [3060데이트 ①]

윤병철 전 우리금융 회장 - 회사원 안종기씨

안종기 우리은행으로 이름 바꿀 때, 저희 회사에서 소비자조사를 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윤병철 그래요? 역시 세상은 한 세대,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어울려 사는 거니까 항상 인연이 있기 마련이지요.

안종기 퇴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퇴직 이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지...

윤병철 우선 은퇴자로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60대는 60년대에 사회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우리 경제의 중심은 농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린 다 농촌의 아이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촌놈들이야. 당시 막 산업화가 시작됐고, 공장 짓고, 거기서 일하고 그랬어요. 우린 한 세대를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다 이제 은퇴하거나 은퇴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은퇴자의 역할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에요.

안종기 60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얘기해주셨는데요. 저와 같은 30대들은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결국 노무현정부 탄생으로 나타났겠지요. 젊은 세대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 등 혼란을 겪어왔고, 그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갖춰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채워야 할 민주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 질서나 구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60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사회적인 부분도 좀 같이 성장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게 30대들의 생각이죠.

윤병철 안 과장은 세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서로 다른 그림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가 좋은 거라고 생각

해요. 나는 기업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70년대엔 학생운동 했느냐고 물으면 다 안 했다고 말해요. 80년대엔 나는 학생운동을 안 하지만 그 노선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87년 6월항쟁 이후엔 나는 학생운동을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 하죠. 이렇게 축이 왔다갔다하는 건 우리 60대 책임이에요. 우리가 말을 못하게 막아서 그렇거든. 반면 주류가 바뀌면 제도도 변화하게 돼 있어요. 3040세대는 이제 한국사회의 주류예요. 주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중기 저는 법이 가진 속성이 민주적이지 못한 데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 위에 민심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탄핵가결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철 어리벙벙합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불신을 서로 힘 대결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기 저도 제 아버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참...;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족과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뢰의 끈과도 맞닿아 있지요. 강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철 감정이 상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60대들은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아들이 다섯이어도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 하나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공장가서 돈 벌고 그 돈을 아버지께 몽땅 드려야 했어요. 나중에 출세한 자식이 동생들 다 거둬먹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일종의 배신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조, 정부와 시민 등 우리사회 곳곳에 이와 유사한 불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조화롭게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죠. 먼저 손 내밀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을 급하게 풀려고 하면 반대쪽에게 빌미만 준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통해 공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법도 바뀌서 집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기 30대들에게 성급함, 서두름, 감성 등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는 80년대를 거치면서 '상식과 합리'를 기반으로 '빈틈없는 논리를 주장'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철 그래요. 젊은이들은 대화를 많이 하지만, 우리 세대는 대화가 없어요. 힘센 놈이 자기 얘기하고 남 얘기를 듣지 않는 문화가 지배적이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이성적 사회, 이걸 파라다이스야!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는 경영자의 책임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책임이 있다고요. 경영자는 경영을 잘 해서 주주와 노동자에게 제대로 이익을 배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에 흑백논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중기 노무현정부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새 주류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60대 기성세대는 이런 새 주류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아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0대와 60대가 만나 어떤 주제부터 얘기하면 서로 확 통할 것 같습니까?

윤병철 나는 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틀을 깨고 세대간 얘기를 해보자고 말이에요. '에이, 끈대 같은 사람, 만날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요. 3040세대는 이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 대한민국 중추세대입니다. 더 이상 소외된 세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기둥이에요. 그런 만큼 매사에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데모 식'으로 항의하는 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중기 저는 60대가 3040세대에게 이런 존재였으면 합니다. '위험한 데 걸어가고 있으면 그리 가면 안 된다'고 60대가 30대에게 말할 때 왜 위험한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 근거와 논리를 얘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윤병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뭘 했나 그런 반성이 듭니다. 5060세대는 '행복과 성공 중 뭘 선택할래'하면 다들 성공을 선택했어요.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퇴근하면서 생존과 안정을 더 중시했지요. 그 덕으로 3040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것 아니에요? 하하. 그래서 더욱 발달한 젊은 세대 아니겠어요? 나는 3040세대가 주류라는 걸 인식함과 동시에 포용력도 가졌으면 합니다. **人間**

기업 사회공헌 확대해야



중은 기업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좋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좋은 기업이란 기업의 역할을 잘 해내고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역할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늘리고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문화·환경지원 등 활동 다양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첫째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기부 행위로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문화활동이나 문화적 투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장학금의 수여나 운동선수의 양성, 스포츠 단체에 대한 후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5년간 기업이 사회복지공동금에 기부한 현황을 보면 삼성의 500억원을 비롯해 이랜드 182억원, 국민은행 150억원, 현대자동차 104억원, SK 140억원, LG 111억원, 롯데 24억원, 포스코 20억원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기업 규모가 대기업에 못 미치는 이랜드가 삼성 다음으로 큰돈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띈다.



유상욱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1933년 생 / 59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81년 美 유니언대 경영학 박사 / 73년 동아제약(주) 상무이사 / 77년~87년 리미아나(주) 사장 / 87년~88년 동아유리공업(주) 사장 / 89년 코리아나화장품(주) 사장 / 95년~현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장 / 96년~현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98년~현 한국공간수필가협회 회원 / 99년~현 코리아나화장품(주) 회장 / 02년~현 (사)한국 박물관회 회장

기업경영은 기업 자체의 힘으로 기업의 역할을 능히 해내고 역력이 있을 때 공익성·사회성·미래지향성을 전제로 기부, 인재육성,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영 외적 지출이 단순히 소모적이거나 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반사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쌍방적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빌 게이츠가 빈곤국가의 질병과 보건 의료 수준에 관심을 갖고 250억 달러를 들여 백신을 보내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또

록펠러, 카네기, 포드 등 미국의 3대 재단의 사회적 공헌은 일방적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존경받게 되는 쌍방적 효과를 내고 있다.

기업은 상품을 팔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광고와 판매촉진을 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는 꼭 필요하지만 이제는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한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접근방법은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상업적 접근이다. 바로 각종 미디어를 통한 광고다. 미디어의 흥수 시대라 할까. 수많은 미디어가 쏟아내는 광고를 소비자들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CF의 차별화, 모델의 차별화, 매체의 차별화, 판촉의 차별화가 그것이다. 또 고비용과 저효율의 위험부담이 적은 환경적 접근이 있다. 상품과 관련해 환경에 투자하는 것이다. 펄프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지공업은 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만들지만 나무를 벤 자리에 묘목을 심는 환경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유한김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실제로 나무 심기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 마케팅 전문 업체이다.

브랜드가치 제고 등 효과도

환경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접근 방식이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문화는 레저의 성격이 강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문화적 접근 방식으로 전개해 크게 인정받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경우가 그러하다. 호암미술관은 에버랜드와 더불어 레저와 전통문화를 함께 하며 호암아트홀, 로댕박물관 등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보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호와 LG의 아트홀, 한독약품의 의약박물관, 농협과 철도청의 전문 박물관 그리고 최근 코리아나화장품이 개관한 화장미술관 스페이스C 등도 문화마케팅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 공헌의 의지를 담은 가치 있는 문화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人間)

복 있는 사람 시편1:1-3

본 기고문은 지난 3월 26일 한국기독교실업인회·경제인조찬기도회 주최로 열린 전경련 강신호 회장 취임 축하예배 중 주재용 전 한신대 총장의 말씀을 특별기고를 통해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께 소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주



주재용
전 한신대 총장

1933년 생 / 58년 한국신학대학 졸업 / 62년 한국신학대학 대학원 졸업 / 74년 캐나다 맥길대학 대학원 졸업 / 77년~79년 한국기독교학회 총무 / 81년 동북아신학교협의회 (NEAATS) 실행위원 / 88년~96년 한신대학교 학장 및 초대 총장 / 90년~92년 한국교회사회학회 회장 / 95년~96년 한국사립대학총학장회 부회장 / 현 한신대 명예교수

경 제와 종교, 이 둘은 서로 조화되지 않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다. 경제하면 돈을 버는 일이고 종교하면 돈을 버는 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계의 공동체는 이익공동체(Gesellschaft)이고 종교계의 공동체는 공유공동체(Gemeinschaft)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피상적 구별이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두 공동체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경제도 종교도 인간을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를 의미하는 영어의 Economy를 초대교회에서는 '經世'로 번역하여 '經世濟民',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과 연관시켰다. 이런 점에서 경제문제는 단순히 돈을 벌고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제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제인은 '경제제민의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다. 히브리어에서 '악'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아닌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그 유혹을 이겨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죄'는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엇길로 빠진 것을 의미한다. 즉 '과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이다. 죄는 화살이 과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악은 삶의 태도와 관련되지만 죄는 삶의 목표와 관련되는 말이다. 공을 홀에 넣어야 하는 골프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한다.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죄의 극복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경주 최 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와 '존경'은 양립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극복하고 'Nobleness Oblige'의 모델을 10대 300년 '만석꾼 명가'를 이어 온 경주 최 부잣집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최 부잣집이 지금까지 300년을 부잣집으로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이루기 힘든 일일수록 겸손하게 행동한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린다,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한다 등이다. 이 가문의 마지막 주자로 살았던 최준씨는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를 세운 사람이며, 일제의 통치기간에는 백상상회를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사람이다. 그는 한 스님에게 들은 금언을 평생 잊지 않고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 금언은 "재물은 분노와 같아서 한곳에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으나,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라는 것이었다. 재물은 퇴비와 같은 것으로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삶의 원칙으로 악인의 피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산 최 부잣집은 진정 복 있는 가문이지 아니겠는가?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은 '조롱한다', '비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정의롭게 살고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살고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비웃어서는 안 된다. 오만한 사람은 잘난 체하여 방자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는 돈을 조금 벌면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오만솔솔한 사람들이 많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겸손'을 의미하는 라틴어는 Humus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것을 거름으로 받아들이는 땅, 그래서 모든 것에 생명력을 주는 땅을 의미한다. 이것이 겸손의 의미이다.

지도자와 고용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런던에 세계적인 백화점을 세운 고든 셸프리는 고용주가 아닌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다.

고용주는 권위주의에 의존하고 지도자는 친절함 설득에 의존한다. 고용주는 공포를 불어넣고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한다. 고용주는 '나'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한다. 고용주는 '일하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일합시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를 의미한다. 경제를 의미하는 영어의 Economy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집(House)을 의미하는 Oikos와 법 또는 질서를 의미하는 Nomia에서 왔다고 하는 학자가 있다. 그렇다면 경제는 가정의 질서를 의미한다. 가정의 질서는 사회 질서의 기본이다. 이 질서를 요약한 것이 기독교의 십계명이다. 이것을 다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늘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다. 한문에 '仁者無敵'이라는 말이 있다. 즉 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에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서 복 받은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삶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싱싱한 삶이고,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는 삶인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무한히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 말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다'는 표현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생산력이 강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실패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도 있고 고통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그의 삶이 성공으로 끝나고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이 살얼음 위를 걷듯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후회 없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해도 하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하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교훈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평생을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 마지막 날,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빈다.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결국 빈손으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人間**

회원소식



• **유한김벌리 창립자 유일한길 조성 선포식**

지난 4월 23일 서울시계에서 인천시계까지의 경인국도 부천구간을 유일한길로 명명한 선포식이 있었다. 한국에서 중요도가 기업인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 전형이라고 할 (고)유일한 선생을 기념하는 길을 조성하면서 이 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열어 나가는 한국경제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국현 유한김벌리 사장**은 4월 20일 서울 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 국제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로부터 여성지위 향상상을 받았다. 문국현 사장은 유한김벌리 근로자의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근로자 고용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
정문술 前 미래산업 회장은 김상훈 회장의 사임으로 공식인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받았으며, 지난 4월 23일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선임되었다.

• **전선희 고속도로정보통신(주) 고문**은 30년간 직장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묶어 만든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길라잡이이자 정통 직장인 매뉴얼인 「직장에서 히트치기」(성지사)를 출판하였다.



•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수상하는 '2004 한국 경영자상'에 선정되어 지난 4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수상하였다.

•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은** 4월 1일 한국경제TV 프로그램 'V로드쇼'에 출연해 지난 40년 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색채미학을 추구하는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이 세 번째 전시 <색, 그대로 박생광展>을 준비하였다. 박생광 탄생 100주년의 해에 한국 채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무당> <열반> <탈> 등의 80년대 작품들과 수묵과 채색을 넘나들며 그 조화를 모색했던 시기의 작품까지 모두 50여 점의 작품을 기획 전시한다.

- 초대일시 : 2004년 4월 8일(목) 오후 5:00
- 전시기간 : 2004년 4월 8일(목) ~ 2004년 6월 12일(토)
- 전시장소 : space*c gallery/c cube

• **한국아쿠르트(대표 김순무)**는 신체활성화에 좋은 아미노산 8종(아스파르트산, 아르기닌, 라이신, 알라닌, 글루탐산, 이소로이신, 로이신, 발린)이 들어있는 건강 기능성 음료 '아미노 센스'를 출시하였다.

• **웅진닷컴(회장 윤석금)**은 지난 3월 29일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 가게' 방학동점 오픈을 위해 110여명 규모의 공간 (지하 20/지상 1층 45/2층 45)과 인테리어, 1만여점의 물품 등을 기부하였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철성산업(주) 두상달 사장님**의 아들 진혁군의 결혼식이 지난 4월 23일(금)에 있었습니다.

• **가락산업(주) 김두호 대표이사님**의 장남 태홍군의 결혼식이 지난 4월 24일(토)에 있었습니다.

• **동우화인캠(주) 한의섭 부회장님**의 아들 현우군의 결혼식이 5월 13일(목) 저녁 6시 타워호텔에서 있습니다.

• **덕지산업개발(주) 배승호 회장님**의 차남 영환군의 결혼식이 5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웨딩프라자에서 있습니다.

신규회원

권원식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장(법인회원)

〈임원〉 류용상 영업본부장 전무, 유창호 관리본부장 전무, 신동립 면세본부장 전무, 송용덕 이사
 · 가입일 : 2004년 4월 1일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 전 화 : 02-759-7101
 · 팩 스 : 02-756-8361
 · 업 종 : 음식, 숙박, 관광호텔
 · 홈페이지 : www.lottehotel.co.kr



전병문 (주)리더홀딩스 대표이사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4월 9일
 · 주 소 : 서울 강남 논현 10-12 용현회관 6층
 · 전 화 : 02-515-6963
 · 팩 스 : 02-515-6962
 · 업 종 : 사업서비스
 · 주생산품 : 리더마케팅, CRM지원, 미디어개발
 · 추 천 :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회장



권경현 (주)교보문고 대표이사 (법인회원)

〈임원〉 김성룡 상무, 정준수 상무
 · 가입일 : 2004년 4월 13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 전 화 : 02-397-3529
 · 팩 스 : 02-397-3490
 · 업 종 : 제조 및 도소매업
 · 주사업분야 : 제조 및 도소매업 · 주생산품 : 도서
 · 홈페이지 : www.kyobobook.co.kr



홍정현 글로벌리더스클럽 회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4월 19일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번3동 191
 · 전 화 : 02-986-1004
 · 팩 스 : 03033-102-8008
 · 추 천 : 김용호 한국엘엠아이(주) 이사



강용근 (주)칼톤테크 대표이사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3월 20일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28-9 4층
 · 전 화 : 02-332-1118
 · 팩 스 : 02-324-3207
 · 업 종 : 엔진오일 칼톤 제품제조 및 판매
 · 홈페이지 : www.kaltontech.com
 · 추 천 : 인간개발연구원 최영균이사



김광영 (주)에이스랩 대표이사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4월 22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15
 · 전 화 : 042-870-0100
 · 팩 스 : 042-864-2587
 · 업 종 : 제조
 · 주생산품 : 환기장치, 열교환기, 제연기, 집진기
 · 홈페이지 : www.aceelab.co.kr
 · 추 천 : 인간개발연구원 오세훈사무총장



*추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세영 씨디그룹 프라이빗뱅크 지배인(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3월 25일
 · 주 소 : 서울 종로 신문로2가 89-29 씨티빌딩
 · 전 화 : 02-2004-2080
 · 팩 스 : 02-2004-1090
 · 업 종 : 금융업 · 주업무 : 금융관련서비스
 · 추 천 : 김용정회장



윤성희 파피루스(주) 대표이사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3월 30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3-12
 · 전 화 : 02-322-1286
 · 팩 스 : 02-322-1204
 · 업 종 : 출판업
 · 추 천 : 인간개발연구원 최영균이사



김시웅 동아건설산업(주)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4월 6일
 · 주 소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 전 화 : 02-3709-2231
 · 팩 스 : 02-3709-3807
 · 업 종 : 건설업
 · 추 천 : 김상회회장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부원광학(주)	박춘봉 사장	(5월 1일)
성도자원(주)	양준호 대표이사	(5월 1일)
주식회사 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주)리더홀딩스	전병문 사장	(5월 1일)
(주)호텔롯데	권원식 대표이사 사장	(5월 5일)
(주)디에이치엘코리아	배광우 사장	(5월 8일)
(주)한국아쿠르트	이은선 사장	(5월 10일)
삼익LMS(주)	심갑보 대표이사 부회장	(5월 10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주)칼톤테크	강용근 회장	(5월 15일)
거벽엔지니어링(주)	김영관 대표이사	(5월 20일)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 **이중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지난 4월 26일 남포면옥에서 제20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중기업동우회 2그룹 다락회(회장 전순표/세스코 회장)**는 새봄과 더불어 112회 모임을 유명 연사를 초빙하여 회원 부부동반 특별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5월 4일(화)
- 장소 : 타워호텔 만복림(tel,02-2236-2121)

• **이중기업동우회 제 3그룹(회장 윤화진/센부테크놀로지 회장)**은 4월 정기모임으로 지난 4월 21일 한양C.C에서 부부동반 골프모임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한국잡지협회 회장)**에서는 지난 4월 27일 화요일 오전 6시에 한양C.C에서 부부동반으로 월례경기를 가졌습니다.

• **Young CEO Forum(YCF)(회장 김상래/(주)성도GL사장)**은 지난 4월 22일(목) 오후7시에 기술인센터에서 제4차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 장관)**는 10여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8가지 지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적용,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지력혁명」(비즈니스북스)을 출판하였습니다.



• **지중해클럽**은 4월 정기모임을 지난 4월 24일 파주 헤이리의 김연호사장덕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4월에 있었던 4박5일간의 중국여행담을 나누는 부부동반 모임으로 이뤄졌습니다. 5월 정기모임은 5월 19일(수) 오후 7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소식

"회원친선의 날"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방문

지난 4월 23일(금) 회원친선행사로 회원사인 유한킴벌리(문국현 사장)를 방문하여 뉴패러다임 운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분의 회원분들이 참석하시어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전공장(김광호 공장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뉴패러다임이란 기업의 안전혁신과 직장내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춰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유한킴벌리의 경우 평생 학습체제를 갖추고 3교대제를 통해 공장을 24시간 가동, 최근 5년 사이 매출액이 2.7배, 수익률이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원친선행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문국현 사장님과 대정공장 김광호 공장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회원친선행사로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을 방문한 연구원 회원들

2004년 밀레니엄 경영자 제주섬머포럼 개최

- 일 시 : 2004년 7월21일(수) ~ 24일(토)
- 장 소 : 제주 샤인빌릭서리조트
- 주 최 : 인간개발연구원
- 참가비 : 회원 100만원 비회원 120만원
- 숙박비 : 1박 16만원 (정상가 대비 약 50%할인)

최고 경영자들의 하반기 경영전략 구상과 휴식을 위한『2004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이 오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샤인빌릭서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샤인빌릭서리조트는 드라마 올인, 슈퍼모델선발대회, CF 촬영 등 각종 방송에서 촬영지로 선호하는 등 해변과 맞닿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번에 특별히 연구원과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과 아울러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 끄리닉 드 파리 특별 제휴 안내

세계적인 노화방지 전문 클리닉인 라 끄리닉 드 파리(한국대표 권성욱)는 지난 4월 인간개발 연구원과 특별 제휴를 맺고 오는 5월부터 라 끄리닉 드 파리의 모든 노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 할인 우대 혜택(15%)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 끄리닉 드 파리는 25년 전통의 유럽식 노화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신체 각 부위의 건강상태를 세포단위로 측정된 뒤 그에 맞는 호르몬 요법과 맞춤 항산화 요법, 식이 및 운동 처방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CEO를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과 골퍼들을 위한 헬스파(Health Par)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특별 우대 혜택은 인간개발연구원 회원과 직계가족에 한하며, 라끄리닉 드 파리 한국체인인 서울 압구정동 '신클리닉'과 그랜드 힐튼 레지던스 내의 '리앤유에이징 매니지먼트 & 스파', 신사동 '타임필'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 김혜원 대리 2191-5566)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 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 한국엘엠아이(주)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내용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 기간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내용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 석세스플래너 포함
- 기간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내용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 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 기간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2203-1974
(H) www.lmikorea.com

폴 마이어와 배품의 기술

부자 신드롬.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몰아닥친 현상이다.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애교의 단계를 넘어 축복의 메시지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국의 부자들」이란 책은 스테디셀러가 된 지 오래다. 이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워 있어도 부러울 게 없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만큼 부자열풍이 불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욕구이다. 문제는 부의 정당성이다. 부자가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자본주의가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선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성된 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기업과 개인들의 나눔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시장경제체제가 천민자본주의에서 탈피하여 성숙한 자본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의 사회 환원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지난 호에 살펴본 미국 LMI의 설립자 폴 마이어 회장의 이야기를 존경받는 부자차원에서 이번 호에도 소개한다. 리더십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헤기아이 박사는 마이어 회장의 물질관에 감명을 받아 「폴 마이어와 배품의 기술」이란 책을 발간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능력과 기술에 달려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나눔의 기술과 실천에서 마이어를 따를 사람은 없다고 설명한다. 마이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배품과 성공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할 수 있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집필동기를 밝히면서 배품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다.

첫째, 마이어 회장의 베품의 정신은 미국의 부자 전통에서 나왔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1890년대에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다"며 자선기부 캠페인을 벌였다. 1918년에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아름다운 부자문화의 전통을 수립했다. 존 록펠러 역시 자신이 운영하던 스탠더드 오일에서 손을 떼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선활동에 쏟았다.

마이어는 이러한 미국의 사회환원 문화를 계승하면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자선가들이 돈 버는 일에 싫증이 난 후에 자선가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으나 마이어는 돈을 벌면서 베푸는 일을 병행한 점이 돋보인다. 그는 약관의 나이인 27세 때 이미 수입의 10%를 자선사업에 쓰기 시작했다. 그 뒤로 재정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자선에 쓰는 비율을 늘려 나갔다. 이는 그가 돈 버는 이유를 베푸는데서 찾고 있기에 가능했다.

둘째, 베품의 모순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다.

마이어는 자신의 수입에 비해 엄청난 돈을 베풀고 있지만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베품은 안전하고 즐거운 일이다. 나아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선활동을 하면 무엇이든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다른 형태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다. '주어라.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는 베품의 모순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다고 고백한다.

셋째, 청지기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기독교신자인 마이어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업의 주인이며 자신은 단지 경영을 위탁받은 위임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뿐이라는 청지기의 자세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물질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사치스럽고 편안하게 살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을 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천부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창조하고,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자산을 늘리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힘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넷째, 베품에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이어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수천만 달러를 버는 것'이고, 다음은 '죽을 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쓰고 남은 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품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는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기관으로 하여금 매달 한 번씩 원하는 것을 적어 보내길 요청한다. 일단 기부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 한 번만 기부하거나 도와주다가 마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다섯째,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고 있다.

마이어는 인간 자체를 사랑한다. 베푸는 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즐겁다. 그는 자신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도와달라는 요구가 강하면 일정표를 변경하면서까지 달려갈 정도로 베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자신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사랑도 베푸는 자세로 실천한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오히려 일을 적당히 하라고 충고를 한 적도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회사 일이 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다.

끝으로 자랑스런 크리스천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을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한 구성원들 사이에 퍼뜨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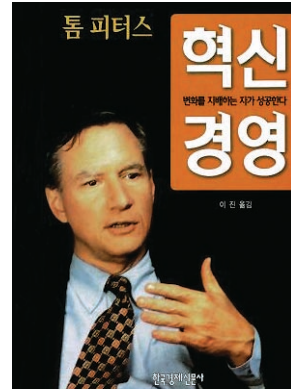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고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인, 예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 왔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가 최선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과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투명성과 도덕성이 리더십의 핵심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부를 이룬 사람도 앞으로 부를 꿈꾸는 사람도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표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보통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부자가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마이어 회장의 베품의 기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人間**

변화를 지배하는 자가 성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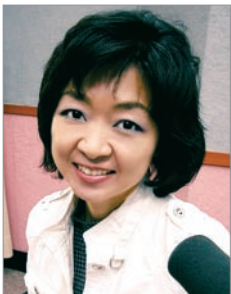
톰 피터스 「혁신 경영」



내가 이 책을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IMF를 거국적으로 맞이들이면서였다. 책을 뒤적이는 순간 눈에 뭔가 확 트이는 물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순수한 내 개인적인 기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유를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부스럼이라 생각한다. 나로서는 책을 만난 순간의 직감과 느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만나는 순간이 중요하다. 책 속의 여러 사진들은 내용을 읽기도 전에 신선한 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뽑어내는 메시지가 강했다. 마치 바로 내 앞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시야를 돌려 푸른 들판을 보게 해주는 힘

대강의 검색을 알아차리고 책을 손에 쥐었다. 한 아이템의 제목부터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면서 내려가는 말투가 정겨웠다. 정말로 속이 다 후련한 것은 기존의 강한 쇠심줄 같은 고정관념들을 아주 가볍게 터치하듯 잘라버리는 말. 말. 말. 자기 안의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도 만끽할 수도 없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었다. '파괴란 멋진 것!', '우리는 모두 미켈란젤로다', '욕망의 물결을 창조하라' 같은 책 속의 제목들을 만나



이현정
불교방송 아나운서

1962년 생 / 85년 이화여대 동양학과 졸업 / 87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 87년 한국청년 작가전, 한국불교미술대전, 한국구상미술대전 특선 / 89년 불교방송 공채1기 / 90년 불교방송 음악의 마음, BBS 생활상담실, 이현정이 만난 사람 외 진행 / 91년 독일에서 제회 개인전 / 인간개발연구원 강사 / 현 불교방송국 '새로운 인생, 이침중합뉴스' 외 진행

기 시작하면서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하는 나만의 호기심이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그 자체가 재미있었고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런 타성에 붙어 겨우겨우 끌려가는 듯한 인생살이는 쓰레기통에나 버려져야한다는 확고부동함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 장 한 장 만나게 되는 강한 어필은 IMF를 만나 어떻게 맞닥뜨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다. 모험과 열정, 도전, 열뜨기 되기, 개인자산 브랜드 만들기 등 우리에게 각자 너무나 많은 기회와 세상이 내 안에 펼쳐져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앞의 길만 보고 힘겹게 달려가는 군상에 잠깐 시야를 옆으로 돌려 푸른 들판을 보게 해줬던 책이다.

내면을 승화시키는 와우, 그리고 욕망에 대한 인식전환

IMF로 많은 방송보조자들이 없어지고 최소

단위 인력들로 방송을 엮어 나가야만 했다.

일인 10억을 해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나는 이 책의 내용처럼 오히려 신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일들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내 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와 오기도 생겨났다.

톰 피터스의 가장 핵심용어는 '와우!'이다. 禪師가 도를 얻어 마침내 터져 나오는 외마디 지르는 것 같은 천연의 외침이 바로 와우이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터져 나오는 함성을 들을 수 있는 멋진 일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각각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누르지 말고 꼬집어내어 승화시키라는 한마디 외침이 와우이다. 이제는 너무나 식상된 표현이라 그 의미가 와 닿지 않을 정도인데 처음 책 속에서의 이 한마디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어지럼증이 순간 일기도 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곤 하는 '욕망'이라는 것도 톰 피터스의 앞에서는 기세가 활활 펼쳐진다. 그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을 누르고 일어 서야 하는 최고중의 최고가 되라고 하진 않는다.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라고 한다. 피라미드 모양의 사회구조상 밑을 누르고 정상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주눅들게 들어온 터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개성을 꽃피워 최고를 벤치마킹하자는 이야기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다.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유도

여러 멋진 말들로 현혹될 때 나에게 정리되어 들어온 말은 프로젝트화 하라는 것이었다. 발견해 내지 못해서 그렇지 무엇이든 적어도 한 가지는 누구나 멋지게 잘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여러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로움이 한없이 느껴지다가도 뽄뽄이 흩어져버릴 수 있는 허무하게 풀어져 버릴 못된 자유성에 강한 찌기를 박아주는 대목이 바로 전문화, 프로젝트화로 모아진다. 단계를 깨부수라는 첫마디에 강한 모순을 들어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두루뭉실미 아닌,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그리고 논리적인, 그러면서도 감성의 극대화를 펼치며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펼치게 유도하고 있다.

이 책은 내가 가끔은 느슨해지고 살아가기 버거울 때 다시 손에 넣어보는 귀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마치 잃어버린 단어를 찾기 위한 사전을 향한 몸부림처럼, 열정의 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 영금영금 기어서 이 책을 찾게 된다. 앞으로도 이런 짓거리리는 계속 되리라 본다. **人間**

국민이 소중하다

4.15 총선은 한국정치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우선 與小野大를 與大野小로 바꾸어 놓았고 지금까지 한국정치무대를 지배해왔던 이른바 3김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따라서 이름 석자만 대면 국민 대다수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알고 있었던 구시대의 정치인들을 대거 탈락시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고 결의했던 거물급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중단케 했다.

400만을 넘는 신용불량자가 소비경제를 강타하고 있고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한 국민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상태를 외면하고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나 당리당략에만 몰입되어 한여름 서리 격인 탄핵정국을 연출해 내는 등 정치를 혼미와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게 한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을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게 만든 것이 4.15 총선의 결과가 아닌가. 10년 전인 1994년 세계언론인협회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내걸었던 “가장 먼저 망하려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이번 4.15 총선의 결과를 연상해 본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위기 속에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생활에 있어 큰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가장 빠르고 쉽게 망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 착실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대실업의 위기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그리고 2004년 4.15 총선이 말해주고 있듯이 한국은 위기의 극복과 시대적 대과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해온 것이다. 최근 타임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경제적 저조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1만불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량실업의 불황 속에 헤매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불어올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른바 3C의 중압을 받고 있다. 3C란 Customer(고객), Competition(경쟁), Change(변화)를 말한다. 고객의 시대, 즉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키고 감동과 감격을 주지 못하면 정치나 기업경영은 제대로 생존, 성장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는 살육적인 초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국가경영에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 즉 국민에게서 나온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변화는 제도적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변혁의 촉매제는 바로 사람이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인간은 누구나 상상력, 신화, 꿈과 희망, 웃음, 사랑이라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값진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하다. 꿈은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희망은 지난날의 경험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웃음은 슬픔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희망은 국민, 즉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만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할 수 있게 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여!
우리를 제일의 고객인 국민의 소중함을 일깨웁시다. 희망은 국민, 즉 사람에게 있습니다. **人間**

창조의 샘, 자연

뭔가 깊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획 구상은 물론이고 논문이나 숙제, 보고서, 혹은 원고를 써야 할 때, 좀 길게는 승진, 자격시험 준비를 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엔 일단 절로 들어갔습니다만 이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퇴근 후, 약속을 줄여야겠지요. 그리고 주말, 일과 후의 텅 빈 사무실, 도서관, 혹은 자기 집 서재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한데 그 보다 2~3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숲 속이나 물가를 가십시오. 경험해 본 사람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써 놓은 원고 매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도심에서 끙끙거리고 쓸 때 보다 생산성에서, 그리고 내용면에서 확실히 다릅니다.

최근 발달된 뇌 과학은 그 해답을 명쾌히 제시해 줍니다. 첫째, 도심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뇌 회로가 달라집니다. 도심에선 우리도 모르게 '경쟁'이라는 테두리에 갇히게 되면서 좌뇌적이고 공격적인 회로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교감 신경의 흥분으로 가슴이 뛰는 등 싸움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래서야 정적인 뇌 활동을 기대하긴 힘들지요. 일단 숲이나 물가에 가면 그것만으로 긴장이 풀리고 뇌가 유연해집니다. 이런 차이는 누구나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둘째, 자연을 가까이 하면 일체의 인공자극, 가령 크락슨, 이웃 집 TV 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혼자라는 것은 일체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져 생각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내 페이스로 갈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수 있습니다. 넷째, 맑은 공기입니다. 뇌와 산소의 관계는 새삼스레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섯째, 숲 향기, 풀내음 역시 뇌에 대한 청량제로써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섯째,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의 화음, 즉 1/f 리듬은 곧 자연의 소리요 우주의 리듬입니다. 이 아름다운 화음은 우리 뇌를 우주의 리듬과 공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음이 그지없이 편안해집니다.

그 뿐 아닙니다. 시각적인 시원스러움, 그리고 산들바람에 날리는 머리칼의 울동, 그리고 피부를 스쳐가는 상쾌한 감촉, 아늑하고 조용함... 이 모든 '자연스러움'이 대뇌에 편안한 휴식을 주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사뭇합니다. 도시의 일상에서 오는 멍하고 무거운 머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맑아서 생각이 절로 됩니다. 이것은 명상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의식은 더욱 명료해서 삼라만상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의 뇌파는 전형적인 느린 알파파(slow 알파)를 보여 줍니다. 이런 정신 상황에서라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자연 속에선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최근의 뇌과 학자는 이를 '우뇌가 열린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바다에서 탄생되었고 인류는 수 만년 숲 속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우리가 물가나 숲에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건 태고적부터의 그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 만년의 인류가 터득한 지식이 유전자 속에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 소리, 촉감, 향내음 등이 유전자에 각인된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불행히 평소엔 경쟁적인 좌뇌의 억압으로 인해 창조의 샘, 우뇌가 활동을 못한 채 잠재의 식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워 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물가로, 숲으로! 人間

Attitude is Everything

성공은 목적지가 아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아직도 시간에 쫓기십니까? 성공적인 시간관리 · 자기경영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바쁜 일상 업무 속에 묻혀진 가장 중요한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법!
EPM만의 시간사용에 관한 간단한 원리와 전문화된 솔루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여가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풍요로운 삶과
당신이 바라고 목표하는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드립니다.

EFFECTIVE
PERSONAL
MANAGEMENT

- 교육 구성 : 1일 6시간 9:00~ 16:00
- 교 재 : 학습교재 + My-Tyme Success Planner
- 참가 인원 : 워크샵과 참가자 자율학습 병행
- 참가 대상 : 전 임직원 및 일반인



한국엘엠아이(주)
<http://www.lmikorea.com>

■ 잠실본사 ☎ 2202-8700 ■ 명동지사 ☎ 774-32030